

광고신도시 3,300세대 삼성 특별분양보도 해명자료

“道, 광고 10% 3,300세대… 삼성에 특별분양”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

보도내용 (08.5.15 경인일보)

- 광고신도시 아파트 3천 300세대를 삼성 연구원들 몫으로 특별 분양을 추진키로 해 '특혜' 논란
- 이 같은 주택법 개정안을 토대로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'읍면동장 연찬회'에서 "광고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 6천여명 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한다"고 공식 발표
- 도내에서 공급 승인을 받은 모든 아파트를 특정 기업 직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면 일반인은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'형평성 상실' 논란

해명내용

- 광고신도시 아파트 3천 300세대 삼성 연구원 특별 분양 추진 및 도내 모든 승인 아파트에 대하여 특정 기업 직원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면 일반인은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라는 “형평성 상실” 논란사항과 관련하여
 - ⇒ 광고 신도시에는 전체 30,242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특별공급대상 물량은 약 1,120호 정도이며, 금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공급코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사항임
 - ⇒ 또한 주택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, 장애인, 탈북자 등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10%범위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삼성 연구원에게 전체 특별공급 물량 전체를 배정코자 하는 사항은 아님
- 읍면동장 연찬회 특강에서 "광고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 6천여명 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려한다"고 발언한 사항과 관련하여

- ⇒ '07년부터 경기도에는 적극적인 기업활동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된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방시책상 특별히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공급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'08. 5. 2일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
- ⇒ 규칙 개정시 그 동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기업(연구원, 장기근로자 등) 근로자 등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는 사항이며,
- ⇒ 이는 직장과 주택 분리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을 초래 및 장거리 출·퇴근에 따른 시간적·경제적 손실 및 안정적인 직장 생활에 저해요인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항임
- ⇒ 우리도는 금번 입법예고(안)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도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청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공급대상자 범위 및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주택 특별공급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